"영화제와 함께 전주 도서관 여행 즐겨요"

시, 영화제 기간 영화인 · 시민 등에 홍보… 3~4일 하루 2개 코스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영화팬들에게 책의 도시 전주의 도서관을 홍보하고 직접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원 에서 전주를 찾는 여행객과 전주시민 들을 대상으로 '전주 도서관 여행' 과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 전주'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또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영화인과 시민, 관객들이 전주의 특별한도서관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루 2개 코스(책+풍경 코스, 영화+예술코스)로 '전주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면저 '책+풍경' 코스는 △책기둥도 서관 △화산숲속시집도서관 △금압도 서관을 둘러보는 코스다. 참가자들에



전주시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영화팬들에게 책의 도시 전주의 도서관을 홍보하고 직접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게 도서관을 여행하며 도서관 밖의 자연과 전경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영화+예술' 코스는 책기둥도서관 에서 출발해 △영화 주제 도서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인후도서관 △분야별 아트북과 절판본 등 희귀예술도서, 호크니 비거북을 만나볼 수 있는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을 돌아보며 전주국제영화제의 분위기를 맘껏즐겨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영화제 기간 중 전주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 에 참여를 원하는 시 민과 여행객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 집(lib.gonju.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4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 부장은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책의 도시 전주를 전 국민에게 알리며 도 서관 여행으로 시민뿐 아니라 여행자 에게도 사랑받는 인문관광도시를 만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미하엘 에마노브스키 체코문화원장은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면담에서 음악, 영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주한체코문화원장과 문화교류 논의

전주국제영화제 참가 · 세계문화주간 등 업무 협의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미하엘 에 마노브스키(Michal Emanovsky) 주 한체코문화원장이 전주국제영화제 참가와 전주시와의 문화교류 협의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부임 후 처음으로 전주를 방문한 미하엘 에마노브스키 체코문화원 장은 이번 전주 방문에서 문화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

에마노브스키 체코문화원장은 전 주시장과의 면담에서 음악, 영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는 체코문화원장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세계적인 작가인 밀란 콘테라, 슬라브 무곡과 위모레스크 등으로 유명한 음악가인 드보르작 등을 배출한 체코의 문화를 전주 세계문화주간을 통해 전주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호른연주자이기도 한 에마노브스

키 체코문화원장은 올 전주국제영 화제 기간 동안 1960년대 고전 체 코영화 등을 상영하는 데 협조했 다.

전날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가한 그는 이날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주한대사를 비롯 한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네트워크를 육성하고, 세계문 화주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주시 관광거점추진단 관계자는 "체코문화는 독특하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주의의 성향을 지닌 문화예술작가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 정체성을 지켜온만큼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관광거점도시전주에서 체코와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실험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관광객 유치에도 접목할 수 있는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

시, 중국 주요 여행 플랫폼 마펑워 통해 홍보마케팅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해 외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가운 데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 동을 걸었다.

시는 사용자 1억3000명, 일일 사용자 800만 명을 보유한 중국 온라인 여행 정보공유 플랫폼인 마평워와 함께 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는 전주 관광홍보 활성화 업무협 약을 체결한 마평워 코리아와 협력해 중국 주요 여행 플랫폼인 마평워에 다 양한 전주 여행 콘텐츠로 중국 관광객 들에게 전주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

한 지난달 28일에는 중국인 인플루언 서를 전주로 초청, 세계적인 독립영화 의 산실인 전주국제영화제 현장과 축 제 분위기를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통 해 알리기도 했다. 또한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전주한옥마을 여행과 막걸리 체험 등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 송도 진행됐다. 이날 라이브 방송은 중국 전역에서 약 20만명(202,483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홍보 마케팅에 이어 향후에도 여행후기, 여행노트, 여행 브이로

그 등 맞춤형 전주 관광 콘텐츠를 제 작·홍보함으로써 중국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여행정보를 전달할 계획이 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중국의 젊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평워 플랫폼을 통해 전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되어 외국인관광객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으로 중국여행객에게 전주를 꼭가봐야 할 글로벌관광지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예수병원, 영화제 기간 의료 지원

예수병원은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예수병원 의료진 안전부스 를 설치하여 영화제 관계자 및 방문객 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 킴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행사장에 전달의료팀과 전용 구급차 를 지원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건강상 담과 구급약 제공, 응급상황 발생 시 에는 본원으로 후송하는 체제로 의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4만 3479필지(완산구 6만7945필지, 덕진구 7만55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 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 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 스,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 원(kra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 비 8.93%(완산구 7.80%, 덕진구 10.07%) 상승했으며, 전주시 1㎡당 평 균지가는 20만6670원(완산구 22만4970 원, 덕진구 18만8371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의 옛 현대 약국 건물로 1㎡당 777만 원, 최저지 가는 완산구 대성동의 임야로 1㎡당 879원으로 책정됐다.

백미영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 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 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 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 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 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 3기 모집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 주)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전주시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 3기'를 모집한 다.

주거복지 실천단은 전주시민들의 주 거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SNS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해 전주시와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주거 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의 시각에 서 신규 주거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 양한 주거복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격일들 누명하게 된다.}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에는 주거복지 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의지, SNS 활동 정도를 살펴 총 10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복지 실천단에 참여를 회 망하는 지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www.jjhousewell.co.kr)에서 내려받은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지원팀(063-281-01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